

응급상황 대응지침

본 글에서는 요양기관 종사자가 알아야 할
응급상황 대응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라는 상황 파악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어르신의 의식과 호흡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하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관 관리자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단히 **상태 확인 → 신고 → 보고 → 응급조치**

단계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2. 상황별 대응 방법

응급상황은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상황별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심정지** :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을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합니다.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있다면 지체 없이 사용해야 하며, 최소한의 시간이 생명을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4.9.26.

깨.알.누.사





급성심장정지를 발견했다면?

깨

우고
반응을
확인합니다



알

리고
119에
연락합니다



누

르고
가슴압박을
시작합니다



사

용합니다
자동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합니다



4/8

- **호흡곤란** : 기도가 막힌 경우에는 기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물질이 의심된다면 하인리히 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하다면 즉시 구조 요청 후 산소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인하임리히법

환자의 의식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119 신고 후 하임리히법 실시



1. 손위치

명치 끝과 배꼽사이

* 주먹을 쥔 엄지측이 안으로 향하게



2. 처치자 위치

환자 뒤에서 감싸안기

* 환자 양발 사이 발 하나 위치



3. 등두드리기+복부 밀어내기

등두드리기 + 복부 밀어내기
소리나는 기침이 아닌 경우
5회 등 두드리기



4. 확인 및 기침 격려

이물질이 나오거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반복한다

- 낙상 : 어르신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이 발생했다면 억지로 일으키지 말고, 통증 호소 부위를 확인하여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RICE 응급처치



Protection 보호

주변 환경에 의해 더 큰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다친 부위를 부목이나 붕대 등으로 고정해주세요.



Rest 휴식

추가 손상 및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운동은 삼가하세요.



Ice 냉찜질

부종과 염증,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옷이나 타월을 이용해 환부에 대고 20~30분씩 냉찜질을 해줍니다.

- **출혈** : 상처에서 출혈이 심하다면 압박 지혈이 최우선입니다. 멸균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하고, 필요시 부위를 높여 출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옷이나 천 등으로 출혈부위를 묶는다.



② 막대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조여 준다.



③ 지혈대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④ 지혈시간을 표시하고, 괴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일정 시간마다 풀어주어야 한다.

주의!

지혈대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지혈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3. 심폐소생술(CPR) 방법

심폐 소생술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질식 사고로 인하여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추게 되는 경우 호흡과 혈액순환을 유지함으로써 심장·뇌 등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여 생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환자의 반응 확인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119 신고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하여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드립니다.



호흡확인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가슴압박 30회 시행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30회
가슴압박을 실시합니다.
※ 압박깊이: 5 cm, 압박속도: 분당
100~120회



기도 개방

인공호흡을 위해,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인공호흡 2회 시행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 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환자의 반응 확인 → 119신고 → 호흡 확인 → 가슴압박(분당 100-120회) → 기도 개방 → 인공호흡 2회**로 진행 후 다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전문 의료인이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4. AED 사용 방법

AED는 자동 제세동기로써 심폐소생술과 마찬가지로 심장의 활동이 멈췄을 때 활용하는 기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AED의 사용 순서는 **제세동기 켜기 → 패드 부착 → 심장리듬 분석 → 심장충격 실시 → 심폐소생술 시행**입니다.

AED를 사용할 때는 강한 전기 충격을 주기 때문에 환자에게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AED를 사용 이후 심폐소생술을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

5. 응급상황 후 조치와 기록

응급 상황이 끝났다고 해서 종사자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보호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 해당 사례를 검토하여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낙상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면 환경 점검을 통해 미끄럼 방지 패드를 설치하거나, 보행 보조 기구 사용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호흡곤란, 낙상 사고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종사자라면 기본적인 응급
대응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응급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사전 준비와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